

I have been fighting alone on a worldwide level

 hdhstudy.com/2011/i-have-been-fighting-alone-on-a-worldwide-level/

I have been fighting alone on a worldwide level

Sun Myung Moon

December 7, 2011

Hoon Dok Hae

Cheon Jeong Gung on 11.13 by the H.C.

Note: These notes are taken from a Peace TV video clip. They cannot be published as definitive texts and should never be used in the future as an “official” publication of True Father’s words. However, they do provide a good idea of the “spirit” of the message. – Rev. Katsumi Kambashi

Ms. McDevitt read Father’s speech from his speech book #36, titled “Time to Harvest.”

Right after the reading, Father told two participants to come to the front to sing songs, saying “You look similar to each other.” The first person sang one of the holy songs said “On the way to this place, this song repeatedly came across my mind.” Father told him to say something after the song, and he said he had been Blessed in 1970 and then was mobilized for witnessing activities for restoring the nation. He said 95% of the Blessed families had joined it and remembered Father had said “If 100% were mobilized, the spirit world wouldn’t have been still.”

When the second person came to the podium, Father said “You are even at the same height.” He sang the same song but in Japanese. Father asked him if he is Japanese and he replied “No, I am not. I was a missionary in Japan and so I learned it in Japanese.” When he was told by Father to say something, he recalled his childhood when he had heard that in Guri city (where our church has a training center) near his hometown, there was a fearful person called “Moon Jesus.”

The following are some of Father’s words.

“I have been fighting alone on a worldwide level. I have no friends, no colleagues, and no parents. In the spirit world, the God of Night and the God of Day have been separate. On earth, Adam and Eve, brother and sister, were told by God, the Creator, not to eat the fruits of the tree of good and evil, but that has remained unaccomplished. Then what does the restoration through indemnity mean? If humans remain in normal blood for a thousand years, there will be no term ‘restoration through indemnity.’ The term ‘providence of salvation’ shouldn’t exist. The fight between good and evil should be gone.

This fundamental problem hasn’t been clear and so I, as a child, had so many experiences that you will never know and can’t find them in this speech. Even in my sermons, I didn’t mention them. Why? I keep them for the future. Only 500 books of my sermons have been published but there would be more than 3,000 (if all were published).

Why do I have so many speeches and complicated contents? You have to know this. I am not a scarecrow.

So many people came to and left the Unification Church.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left. They later tried to oppose our church substituting their race and nation through the representative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y wanted us to disappear, hoping our church would disappear within 10 years. But 10 years later, they found that we were advanced connecting all layers of the world while they found themselves living in a separate world. We are now in the time when we discuss the unification of the cosmos. They will say I am lying but I won’t give any excuses. You wait and see.

What the Unification Church is famous for is there are many members who know things like PhD holders. They don’t actually hold PhDs but there are many members who are beyond that level. How could it be? If you know me for more than 20 years, you could know enough to be a professor. I am in a position of parent and school

teacher, but what happened to you?

I am a person who pioneers to establish schools, and actually made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However, you are still on the level of a junior high or high school student (spiritually). If you can't fill the gap, my all efforts will come to naught. You will be pushed away by those who believe in Buddha, Confucius or Mohammed.

We are now in the Last Days. All the four great sages (Buddha, Confucius, Mohammed and Jesus) are in paradise in the spirit world. But Moonies, though there is not Substantial God, they are standing close to God. There are the tradition, blood lineage and the model history of resemblance, not in the tombstone nor the earth but in sons and daughters. Rev. Moon... to my grandchildren... When I see you, I want to wipe out all of you... (I will say) those who follow grandchildren will take over the world.

I have secrets that only I know, and have been thinking about whether I should teach them to you or not. If I explain them you will know them clearly."

Korean Transcript:

한국 청평

훈독회 때 참아버님께서 한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역사적인 비밀의 내용을 이들이 앞에 한 40분 얘기해 줬는데, 그 골자만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 사람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받았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여기 가까운 사람은 이제 선생님이 훈시하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타진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섭리에 대한 마디가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어떻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방향 설정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디가든지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혼자, 세계무대를 중심삼고 나 혼자 싸워왔습니다. 내 친구도 없고 동무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영계를 바라보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갈라졌어. 또 지상세계에서는 아담 해와의 두 남매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창조주 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 문제. 그 숙제가 지금까지 인류역사에 표제로 남았던 것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탕감복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잃어버린 것을 그냥그대로, 잃어버렸으면 천년 후에도 그냥 그대로.... 그걸 떼버려야 할 텐데, 떼는 데는 천년 동안에 정상적인 혈족으로 자랐으면 이 지구성에 탕감복귀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구원섭리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선악의 투쟁이 없어져야 돼. 이 근본문제의 해결이 구름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철부지한 내가 어린애로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건 이 책에도 없습니다. 선생님의 설교집에도 다 나오지.... 왜? 미래의 때에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교한 내용만 해도 아마 3천권 넘을 거예요, 책으로. 그 책 가운데 출판한 것이 5백 권밖에 안됩니다.

그거 선생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 많아? 여러분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선생님이 한 것이 허재비 아닙니다, 허재비. 허재비라는 것은 실체 내용물과 어떠한 하나의 표상적 사람이 돼 있는데, 사람이 됐으면 부처님이 동상 돼 가지고 부처님이 사람 돼라. 부처님이 뭐냐? 실체의 표상적인 대신자인데 그 대신자가 실체의 주인 자리에 서서 까먹고 있어. 파먹고 있다는 거야.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가 엉클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있는, 혼자 세계와 싸워가지고 개인적인 세계무대에서 어떻게 남아졌어? 그 다음에는 가정적인 무대, 혼자 살고 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하나님 어머니가 없는데 우리 세상에 내가 부모를 갖고 있다는 역설적인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어? 부모가 누구야! 그거 가짜야 진짜야?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타락해서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손자도 없고, 1대 2대 3대가 5대 7대, 수십 대 수백 대를 거쳐 와 가지고 인류역사라는, 이 뭉쳐있는 이 괴상세계가 뭐야? 원래에 있어야 할 1대 2대 3대 4대 5대, 수천 대는 어디로 가고, 타락해 쫓겨난 수천 대 엮어진 것이 사실과 같은 자리에서 행동한다면 우와, 큰 일이지. 그러한 사실상을 중심삼고 나가는 역사가운데 문 총재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이것을 수습할 도리.... 나 지금까지 반대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책임져!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모시라고 가르쳐준 적 없어요. 너 딴 종교 믿는 거 그만두고 통일교만 믿으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환경 그대로 따라 나오면서 나의 주장을 해 가지고, 환경과 대조해 가지고 그 대조보다도 못하지 않으니까 참고해라. 안하면 모가지를 쳐버리고 주권자의 절대 권한을 가진, 헌법을 가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나 못섰어. 나 모가지 친다는 놈 잡아내 가지고 몽둥이찜질해 가지고 훈독회 들어가

게, 표상적 상징이 아니면 형상이라도 모양이라도 그림이라도 남길 텐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자신이 못 돼있기 때문에 뒤두고 보고나오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어. 통일교회 알다가 나간 것이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끝까지 세계를 하나로.... 떨어져나간 무리들이 뭐야? 민족을 대신하고 국가를 대신하고, 야당여당 대표자들이 전부 다 통일교회를 지지하다 반대해버리게끔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뭐? 뭐야? 나간 사람들은 망할 길 바라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10년 이내에 없어질 줄 알았던 문 총재, 10년 후에 자기들 가운데 평균으로 볼 때는 앞서있어. 백단계로 갈라놓고 천 단계 만 단계 갈라져있지만, 자기들은 갈라진 세계에 살지만 나는 역어 나온 세계, 1단계 이래 가지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어져나오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이 가운데 잃어버리니까 '저사람 여기서 개인시대에 살더니 지금은 세계시대...' 천주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시대에 와있어.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해도 내가 변명 안합니다. 두고 보자.

끊어져있어. 이쪽에는 끊어져 나오는데 뒤편에는 이어 나와. 통일교 반대하고 떨어진 사람은 문 총재 없어질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대학친구, 대학선생,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뒤로 와있어. 어떻게 처리할 까? 그 숙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냥두면 처리 못하고 이 앞에 있던 녀석도 다 도망가버려. 뒤를 돌아보면 나보다도 다 낫네동동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9단계 10단계, 여기인데 문 총재는 다 빈 줄 알았는데 이쪽 반대에 있어서 9단계 고개도 지배할 수 있거든. 1단계 2단계에 남아진 국가 최고의 지도자들이 큰소리를 해도, 암만해도 우리를 굴복 못 시킨다! 두고 보자. 3년, 4년 두고봐. 아! 그 아들딸, 손자가 통일교회 들어왔어.

여기 남은 사람들은 뒤로 오나 앞으로 오나, 타락해 가지고 계산 잘못 안하면 한번으로 끝날 텐데, 계산 잘못 해 가지고 세 사람 남았는데 제자들이 대학교 교수도 되고,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됐는데 이들은 학교도 졸업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가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 박사학위 없는데 박사들이 많아. 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박사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데 통일교회 내에 박사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선생님이 50년 이상, 70년 이상 되니까 까끌잡이가 됐다. 너희들은 20년 전에 나를 알았으면 교수 아니야? 선생님의 부모 자리, 선생님의 학교 선생의 자리에 서야할 텐데 이게 뭐야?

나, 학교 세울 수 있는 개척자가 돼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 다 만들었는데 중고등학교에 있으니 그 공백을 어떻게 매워야 돼? 그거 매울 수 있는 재간이 없거든랑 문 총재도 나무아비타불 되는 거야. 불상 섬기고 석가모니 믿고, 공자 믿고 마호메트 믿던 사람들에게 밀려나기 때문에 만만세, 억만세 나무아비타불, 망할 것은 문 총재지 문 총재가 공자 아버지 되고, 석가 아버지 되고, 마호메트 아버지 어머니 될 수는 없어. 그게 달라.

지금 현재가 끝날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4대성인들이 영계에 가 가지고 낙원에 가있는데 문 총재패들은, 성인들이 낙원에 가 있는데 하나님 될 수 있는 실체는 없지만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지고 전통이 있고, 핏줄이 있고, 다텔음의 역사에 모델이 이 안에 있으니 이 비석과 흙덩이가 아니고 아들딸. 문 총재는 손자를 그렇게.... 손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의 천하게 될 것이다.

© 2013 - 2014 hhdstudy.com | [Contact Us](#)

• [RSS](#)